

# 탈레반, 파키스탄 학교 공격... 학생 등 141명 사망

### 정부군 소탕작전 보복 교실 난입 무차별 난사 軍, 교전 끝 전원 사살 국제사회 강력 비난

파키스탄 북서부 키베르 파크툽크와 주(州) 페사와르에서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탈레반 반군이 군 부설 사립학교를 공격해 학생 132명과 교사·교직원 9명 등 141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군들은 교실에 침입해 숨어있는 학생들까지 찾아내 무차별 살해하고 파키스탄 군과 8시간 이상 교전 끝에 모두 사살되거나 자폭했다. 이번 테러는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테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것이다.

◇무자비했던 8시간... 희생자 대부분 10대 = 탈레반 반군은 이날 파키스탄 군복으로 위장해 학교 후문으로 침투했다. 이들은 모두 폭탄을 두른 조끼를 입고 있었고, 총을 무차별 난사하면서 '인간 사냥'을 시작했다.

총소리에 놀란 학생들이 책상과 의자 밑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들은 교실마다 문을 부수고 숨은 학생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총알을 쏟아부었다.

페사와르의 군부대 지역 한쪽 끝에 있는 이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10학년까지 두고 있다. 희생자들도 대부분 10~18세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에는 1099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구조된 14살 아흐메드 파라즈는 "(반군이)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더니 그중에 한 명이 '많은 어린이가 의자 밑에 숨어 있으니 죽여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에 전했다.

파키스탄탈레반(TTP)은 이번 공격이 북와지리스탄에서 벌어지는 탈레반 소탕전의 보복이라면서 "정부가 우리 가족과 여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도 군이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했다"고 성명을 냈다.

파키스탄군은 지난 6월 TTP의 근거지인 북와지리스탄에서 탈레반 소탕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1100여 명 이상의 TTP 대원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각국 테러 강력 비난=세계 지도자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테러에 강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름끼치고 흉악하다"며 "테러범들은 학생과 교사를 목표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다시 한 번 내보

였다"고 비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방어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사이에 공격한 것은 공포스러운 행위이며 비겁한 짓"이라면서 "이번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도 "이번 테러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악감과 함께 비통함을 느끼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1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파키스탄 탈레반 학교 공격



1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서부 키베르 파크툽크와 주(州) 페사와르의 군 부설 사립학교에 침투한 탈레반 반군의 공격으로 부상한 한 학생을 자원 봉사자들이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러시아 디폴트 우려

〈채무불이행〉

### 루블화 가치 폭락...신흥시장 금융불안 야기 유가급락·서방제재 직격탄...푸틴경제 위기

러시아 외환시장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공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폭락 행진을 거듭하며 신흥국의 금융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더욱 궁지에 몰려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에 위해 기준금리를 연 17.0%로 6.5%포인트 전격 인상했지만,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80.1루블로 9.8%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70루블 안팎에서 거래됐다.

러시아의 주요 주가지수인 RTS는 12.3% 폭락했다.

러시아의 외환위기 우려로 신흥국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터키 리라와 가치는 장중 달러당 2.41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브라질 헤알화는 9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2.73 헤알을 돌파했다. 저유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원유수출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발 금융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국영기업에 추가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러시아가 사면조가에 빠지고 있다.

서방 제재와 저유가 지속하면 러시아가 일부 대외 채무에 대해 우선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의 대외 채무는 약 7000억 달러로, 이 중 1250억 달러는 내년 말까지 갚아야 한다. /연합뉴스

# 유엔, 22일 북한 인권문제 다룬다

### 안보리, 정식 안건 채택 대응책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자 요청한 데 따라, 오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다룰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0개국을 안보리 의장(마하마드 젠 체리프 차드 대사)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고자 촉구했고, 15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22일 또는 23일 북한 인권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 주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중국, 러시아 등이 안건으로 올리는 데 대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에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건으로 상정되고 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부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안보리에서 결의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후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이 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아프간 탈레반과 별개 조직

### ■ 파키스탄탈레반은?

파키스탄의 군 부설 학교를 공격해 141명을 살해한 파키스탄탈레반(TTP)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10대 교육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에게 2년 전 총격을 가했던 바로 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TTP는 2007년 파키스탄 내 이슬람 무장단체 13개가 연합해 결성됐으며, 현재 30여 개 무장단체 2만5000여명의 조직원이 TTP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대 지도자인 바이틀라 메수드와 2대 지도자인 하키물라 메수드는 모두 미군 무인항공기(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지난해 11월 마울라나 파즈룰라를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

했다.

'탈레반'이라는 명칭을 같이 쓰고 있지만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태동해 아프간 정권을 장악했다가 2001년 미국의 침공으로 축출된 아프간 탈레반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는 TTP는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파키스탄군과 경찰을 상대로 지속적인 공격을 벌였으며 민간인에 대한 테러도 병행했다.

이들은 서구식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을 반대하며 특히 여성이 교육받는 것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 "김정일, 사망 직전 딸 집에서 쓰러진 듯"

### 제일학자 주장...북 발표와 달라

3년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시기와 장소가 북한의 공식 발표와 다르다는 주장이 재일(在日) 북한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일본 류코쿠(龍谷) 대학 사회학부 이상철 교수는 탈북한 북한 전직 관료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북한이 발표한 2011년 12월 17일이 아닌 그 전날 사망했으며, 장소도 열차 안이 아닌 평양 근교의 별장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16일 저녁 지방 시찰을 취소한 뒤 평양 시내에 위치한 장녀 설송(39)씨 집을 방문, 설

송씨와 술을 마신 뒤 침실에서 쉬다 오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졸도했다.

졸도 후 응급처치를 받은 김 위원장은 평양교의 강동군에 있는 별장 '32호 초대소'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후 11시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북한은 2011년 12월 19일, 김 위원장이 같은 달 17일 오전 8시 30분 현지지도를 가는 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당시 평양에서 움직이지 않은 사실이 한국과 미국의 위성정보를 통해 확인되면서 북한이 발표한 사망 시점에 대해 애초부터 의문점이 제기됐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선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강황의 효능

1. 치매예방
2. 당뇨 비만 등 성인병치료 예방
3. 관절염 치료 및 예방
4.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H 현대해상화재보험**